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류경구강병원의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기공실, 보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루에 환자들이 몇명이나 찾아오는가,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시고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어디가 아픈가를 다정히 물어주시고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공전같은 병원에서 돈 환권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데 로인들의 손을 잡아주신 원수님께서는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기뻐하시었다.

병원이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인민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우것은 세계적수준의 강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의 물질기

술적도태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와 료전기재 등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병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옥류아동병원에 들리시어 병원일군들로부터 관리운영과 의료봉사활동에서 애로되는 것이 없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보건정책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동주지와 함께 3월 22일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시었다.

공연무대에는 녀성총창 《인민의 환희》,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총창과 방창 《우리 어머니》,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녀성3총창 《귀환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날아가다오 나리내 마음아》, 녀성독창 《희망넘긴 나의 조국아》, 녀성2총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경음악 《병사의 발자욱》, 녀

성독창과 방창 《용사들》, 녀성총창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녀성4총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총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총목들이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고난도 시련도 두렵지 않으며 그의 힘찬 발걸음만 따르며 협산준령도 웃으며 헤쳐 넘을 수 있고 그 어떤 강적도 단숨에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나마냥 끓어번지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민주공고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9일 킨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공고 공산당,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민주공고-조선친선 및 현대성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공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공고-조선친선 및 현대성협회 위원장 오명태가 가담음 위원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가장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 온 세상의 자화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주석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태양절에 즈음

##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하여 민주공고인민에게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릴것이다.

준비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집회, 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가 15일에 결성되었다.

전국준비위원회는 네팔의 여러 정당, 친선 및 사회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출판보도부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피.마 이날리가 선출되었다.

전국준비위원회는 결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4월 15일은 세계 진보적인 민들에게 있어서 력사적의

를 가지는 날이다. 우리모두는 이날을 뜻깊게 경축할것이다.

조선인민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 있으며 진보적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상징하는 위대한 날로 간주하고있다.

우리는 이날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태양절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장구한 기간 자주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령도하시어 커다란 사회경제적번영을 이룩하시고 인류해방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인리에 기초한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태양절경축 인도네시아

양성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당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인도네시아 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누르딘 부르노모와 총서기 하리딘 싱을 비롯한 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총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는 헤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여

김일성주석은 한생을 조선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으로 총위원장과 총서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성스

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로씨야사회계 준비위원회가 13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써야협회 위원장 예.아.베드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에는 로씨야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집회, 엄격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벨라리아, 에스빠냐, 수리아, 기르기즈스탄, 따위끼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타이, 로모니아, 스웨리에, 방글라데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태양절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김정은령도자의 사랑

### 재미동포언론인의 글

재미동포언론인네신문 《민족통신》이 대표 로길 남의 글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을 실었다.

글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배부하시기도록 해주신 이야기들 그자체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주 경축 행사에 나랏말을 퍼붓는 사람의 자식이지만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을 차용했어 대표로 참가하기도록 해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정은제1위원장의 인민사랑, 광복정치의 대한 전설같은 일화들은 참으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은 북녘동포들의 가슴깊이 젖어 들어 감동과 존경을 일으키고있다고 밝혔다.

하기에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경도의 정이 북녘동포모두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

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상에 자기 령도자를 그토록 떠받드는 나라는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김정은제1위원장을 총직하게 받들어 모시려는 활활산처럼 뜨거운 마음들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펼치고있는 중상과 모략소동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조선은 자주권을 존중하며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강조한다.

모두가 주인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며 사는 이런 사회를 향해 《인민부재》니 뭐니 하고 말한다면

본사기자

그렇다. 북은 아직도 부족한것이 없지 않으나 정치, 군사, 첨단과학, 음악예술, 교육, 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불 배 한마디로 건강하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민주의의 정치를 펴시고 군민은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모신다.

지금 북녘사회에서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불타는 소원》 등의 노래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울려 퍼지고있다.

이 노래들은 북녘군민들의 가슴속에 있어오는 령도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제29차 도(직할시)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29차 각 도(직할시) 과학기술축전들이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축전들에는 시(구역), 군 과학기술축전들에서 당선된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축전들에 농업과

건설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천건의 논문들,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축전들에서는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새 기술교류, 첨단기술경쟁의 등이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논문들과 각종 전시품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

으로 끌어올리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피타는 탐구의 날에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들이므로 하여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축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본사기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가 네델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터무니없이 결고들며 도발적인 망발을 제친것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박근혜는 네델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일도당도 침체 결고들며 심히 못된 망발을 지껄었다.

그는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좀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지어는 《냉전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니, 《북의 핵은 데로에 사용될수 있고 주변국 핵무장경쟁을 야기시킬수 있다.》는, 《심각한 우리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는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특히 그는 이사람저사람을 만나서는 우리의 병진로선까지 결고들면서 《불가능하다.》는니 뭐니 하고 시비질하였다.

박근혜가 지금까지 우리 핵문제와 병진로선에 대해 무덤하게 망발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그 《위험성》을 증명해보려고 우리의 평화적핵시설까지 여치구니없이 결고들면서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을 초래할수 있다고 쉼체대 해서는 만사람이 쓴웃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아무리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고 하여도 무엇을 지절대했으면 엄연한 사실자료나 초보적인 상식이 라도 똑바로 알고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바른대로 한마디 하려면 마땅히 핵무기를 제일먼저 만들고 그것을 확산시켰으며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핵참화를 들뜨우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있는 미국부터 규탄했어야 할것이다.

제땅에 미국핵무기를 가득 끌어들이고 지금현재도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당사자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한 핵억제력을 결고들다 못해 평화적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양천대소 할 세계적인 통증조조거리가 아닐수 없다.

핵시설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한다 해도 한해에 몇번씩 고장나 멈춰서고 핵오염물질류출사고까지 일어나야단치는 남조선의 핵발전소와 일본

과 미국에서 있는 특대형 핵발전소 참사부터 먼저 꼽아야 할것이다.

부연하건대 우리의 주체적기술과 힘에 의해 건설된 냉병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십년이 지나도록 사소한 사고도 없이 오늘날 기준자재 잘 돌아가고있으며 2년간의 환경오염은커녕 물과 공기, 지치가 너무도 좋아 우리 나라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얼마나 우리의 핵문제를 시비하고 싶었으면 우리의 냉병원시설을 체르노빌핵발전소에 생동같이 대미시켜 남조선언론들까지 과학적근거도 없이 북핵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가 국제적평판을 자초하였다고 비난, 조소하겠는가.

미국의 핵전쟁하수인인 박근혜가 상건의 흉내를 내어 《핵이 없는 세상》을 떠들듯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것을 《북핵포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것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판별할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 아니면 미국과 한속통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박근혜는 이번엔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결고들고 병진로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증지할때 대한 북남공위급접촉합의를 그자신이 탄복하게 위반하였다.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북남합의는 아무때나 뒤집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선거공약》도 아니고 리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정배들의 상투적인 빈 약속도 아니다.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실사 누가 무식한 글을 읽으라고 써 주었다 해도 이제는 청와대의 안방에 까지 들어앉았는데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나네의 근성을 버리고 세상사람들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야 그나마 초보적인 자질이라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것이다.

박근혜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 핵문제를 판권하여 맹배히 말해줄것은 전조선전도비핵화는 있을수 있어도 일방적인 《북비핵화》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그에 대해 애당초 꿈도 꾸지 말라는데가 있다.

《핵이 없는 세상》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되어야 하였는가에 대해 다시 되새겨 보고 핵무기의 조상이고 핵위협의원흉인 상전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그래야 핵문제의 올바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를 계속 지켜볼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높이 생산을 적극 늘이고있다. - 홍주닭공장에서 -

#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에서 펼쳐지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밝혀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단결시키며 불리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현명한 명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해 3월에 이르러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업살책등은 최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정당당당한 평화적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경고하며 불법무도한 《제재결의》라 하는 것들을 조작한데 이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순동을 벌여놓고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병진로선은 나라의 전쟁역력을 비강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성

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공화국의 실정에 맞게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로선이다.

인류역사는 지금까지 1만 4 50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규모의 맹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특히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조선반도에 핵전쟁 발발의 위협성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정세속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인 환경속에서 마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하는 선차적이고 중요한 문제인것이다. 또한 현 시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이어 어떻게 하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있는조건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자위적국방력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없음이 강화하는것이아말로 더 많은 자금과 로력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집중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로선으로 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 발표되자 세계의

들은 《조선은 제재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한 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이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 이제 부터 시련과 난관은 있어도 끝이 짧고 일시적인것이 될것이다.》

고 공감을 표시하였다.

참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 제시하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무비의 담력과 배정,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룩하신 투

출한 업적이며 이로 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병진로선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하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해 6월 온 나라 인민들에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마식령수도》를 창조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도 보내주시었다.

그이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하여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 문명국건설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열릴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해에 뜻깊은 전승기념일을 맞이하며 열병식이 거행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이며 끊임없는 전쟁연습순동이 벌어지는 속에서 전승전일군회와 조선인민군 제3차 총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비롯

한 력사적인 대회들과 회의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국방위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체육인살림집,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수많은 창조물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우수축출처럼 솟아올랐다.

그뿐이 아니다. 드넓은 대지에 새로등관산정이 펼쳐지고 철령아래에 청춘과원이 솟아나 룡성변영향 공화국의 배일을 그려보게 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과 창성의 지방산업공장을 본보기로 전국구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진이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국내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산의 동음이 더 높이를릴수 있었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병진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번영과 안녕을 담보하는 위력한 보검이며 세기를 두고 내려오는 반미대결에서 총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이 땅위에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안아올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 1년간의 격동적인 사변들과 힘이 없으면 짓밟혀야 하는 국제사회의 맹목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가를 때때로 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절세위인의 애국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대고조의 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의 긴장이 나날이 격화되고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 지금 공화국에서는 최고사령관을 모시고 군인들의 류다른 사격경기가 련속 펼쳐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교직원들의 진흥 및 자동보총사격경기가 진행될데 이어 김집중해군대학과 김백향공군대학 교직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사격경기를 벌이는 행운을 지니었다. 그런가하면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군중, 군단급단위의 장병들이 사격화지를 차지하고 자동보총을 쏘는 장면들도 인상적이었다.

더우기 최고사령관을 모시고 3월 한달동안에 3차례나 련이어 진행되는 사격경기가 어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세계보편 공화국은 총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있는 나라이다. 군대가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키는것은 물론이고 온 나라 인민들이 한손에는 마차와 낫과 펜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대를 쥐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한것이고 총대로 선군위업,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공화국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신념의 반영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는 총대와 함께 흘러온 력사이다.

## 조선의 총대

《이 두자루를 밀전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 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치자 200자루, 2,000자루, 2만 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쓰신것처럼 아버지수령님께서서 아버지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밀전으로 하여 항일투쟁투쟁을 조직 전개하십시오. 새 조선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아오십시오.

그 정의와 애국의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가렬 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전승의 축포를 터쳐올렸으며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시어 공화국을 자위의 핵억제력을 보유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었다.

그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남조선의 한 퇴직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부의 선군정치

는 민족의 군대, 민중의 총대가 없어 겪어야 했던 수난의 력사에 총지를 찍으며 자주와 존엄의 시대, 민중의 복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인류리상상의 정치방식이다. 북은 선군정치의 주축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상호하는 강국이 되고》라고 서술하고있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조미사이의 대결은 정의와 부정의간의 첨예한 대결이다. 미국은 이 시각에도 대양 건너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끌고와 함포를 쏘아대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이 마구 휘두르는 총과 대포에는 약육강식의 피비린내가 짙게 풍기고있다. 그 총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살륙과 전쟁이 그칠새없고 미국내에서도 잔인무도한 살인사건들이 무수히 터져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이 틀어쥔 총대에는 정의와 애국 의지가 있다.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부강조국건설을 군사적으로 담보해주는 조선의 총대이다.

정의는 힘이 안받침되어야 지켜질수 있다는것은 고금

동서의 진리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군사장비를 가지고있고 주요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해마다 댕진하는 그 오만하고 황폐한 승냥이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을 짓기면서서도 그 도둑 눈이 가시처럼 여기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감히 선 불질을 못하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총대가 그처럼 강한 힘이다.

공화국이 자위적인 조치로 중대거리 로켓 몇발을 날린것을 가지고도 기겁하여 《위협》이니 뭐니 하며 리를 피우는 미국이다.

조선의 총대는 사상으로 만강약대여있다. 그 사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주적권리와 참된 행복을 담보해주는 공화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애국의 마음이며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인민의 열의와 의지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닭알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이 주장하는 사상제일주의이다.

자위적핵억제력의 위력에 사상의 위력을 더한 선군조선의 총대.

그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얼마전 선군명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류다른 사격경기는 총대로 사회주의, 인민의 세상을 끝까지 지키며 미국이 감히 덤벼들던 단계에 요정내고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짓개고야말 선군조선의 명검의 의지와 철의 신념을 과시한 뜻깊은 력사의 화폭이었다.

## 애국의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지켜들고

2013년 3월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은 조국보위와 경제강국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이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지난 1년간의 현실을 통해서도 남김없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새로운 병진로선이 채택된 뒤 지난해 3월이나 지금이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업살책등은 변함없이 오호러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어 위협천만만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해에도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편대들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은 공화국을 핵위협공갈하며 남조선과 주변지역을 돌아치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무대에서 그 무수한 성과와 기적들이 이며 공화국에 대한 갖은 비

방증상을 일삼아 저들의 부침전승수행의 구실로 써 먹으려 하고있다.

우리가 잘살게 되는것을 배아파하고 어떻게 하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 압살하려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다. 정책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자위의 핵억제력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조선을 타고갔으려고 침략의 방아쇠를 당겼을것이다. 조선반도는 엄청난 핵전쟁재난터로 변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자위의 억제력을 비롯하여 군력을 더욱 강화하여왔기에 미국은 어찌지 못하고있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지켜지고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나아가면 결과 지난 1년동안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도 놀랄만한 성과와 기적들이 이룩되었다. 이것은 세계가

보는 현실이다. 미국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봉쇄압살책동속에서도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경이적인 화폭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속이다. 이게 무슨 덕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신 새로운 병진로선의 덕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갖은 비방증상을 일삼지만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는 병진로선은 변할수 없는 우리의 억척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레모두를 지켜주고 통일번영에로 이끌 이 로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갈것이다.

중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심경옥

## 송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한평생이었다.

주제90(2001)년 3월 어느날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 보건부문의 한 일군이 삼가 선물로 올린 의화도서를 받으시었다.

도서의 제목은 《100년 장수여로의 길》이었다.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화자료와 상식을 묶은 책에는 의학과학적 문제들과 건강상식들이 생활과 결부되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다.

도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게 장수자들의 생존한 생활체험자료를 구수하게 서술하고 그림까지 안반침한데다 성구와 속담도 적절히 배합하여 누가 보아도 흥미있게 되어있었다.

이 도서에는 이런 절절

## 《100년 장수여로의 길》

한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주제 83(1994)년 7월, 력사에 지울수 없는 크나큰 상식의 아픔을 남긴 대국상의 나날 어느 한 병원의 기술부원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잘책하다가 분명히 일어섰다고 한다.

우리 장군님을 잘 모셔 오라. 장군님의 건강이자 우리모두의 운명이다. 장군님께서 일상적으로 건강을 돌보시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써올리자.

이 도서집에 그의 아들, 딸, 사위, 안해 등은 가족이 밟고 도와나섰다. 한편의 도서에 온 일가의 지성과 심혈이 그대로 깃들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한 의학자가정의 다함없는 소원이 담긴 도서의 결표지로부터 내용을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화자료와 상식을 묶은 책 《100년장수여로의 길》이 잘되었습니.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서 독자들이 어느때든지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장수를 절절히 바라는 인민의 념원이 깃든 책이었던 장군님께서서 그 책을 건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자신의 건강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건강과 장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쓰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었다. 그이의 가장 큰 기쁨과 생의 락도 인민의 기쁨과 행복복된 생활을 보시는 그때였다.

본사기자

## 눈물에 비낀 정의 세계

공화국에서는 철부지 어린아들도 원수님을 만나면 비오면 발을 동동 구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한다. 두해전 조선소년단장립 66회를 맞으며 풍치좋은 모란봉기슭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소년단체대표들의 성대한 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고 몸소 연설까지 하시자 아이들의 두볼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면 비오면 자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것인가.

그 눈물들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마음이 담겨있으며 령도자와 인민사이에서 맺어진 줄줄레아름을 수 없는 혈연의 정이 절절하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고 운명가 미로도 다 맡길 위대한 태양이시다.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간직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이께서는 최근 몇해어간에만도 인민을 위해 수

많은 현대적인 창조물들을 일떠세워주시었다.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어하는 천애버의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도 크게 꾸려주시고 마식령스키장에 멋들어진 스키장도 꾸려주시었다.

인민들이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궁전같은 병원을 세워주시고도 치료를 받는 인민들의 모습이 보고싶어서 병원을 찾아오신 날에도 원수님께서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우는 세계적수준의 구강병원이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시었다.

이런 령도자를 모시며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을 넘치고 세세년년 풀이온 꿈과 리상들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이 원수님을 뵈으며 어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 눈물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신뢰심이고 그리움이며 세월이 간대도 그이 한분만을 따를 맹세와 의지의 분출이다.

눈물은 억지로 지울수 없고 더우기 강요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진실한 마음과 감정의 분출이다.

지금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을 함부로 꺾고들며 《최악의 인권불모지》니, 《금번사태》니 뭐니 하며 지껄어대고있다. 이것은 인민의 반석같은 지지에 떠받들려 있는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대조

성제재와 압살의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적대세력의 리성원은 최후받아야다.

그들은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고있다. 조선을 일자면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를 무리로 흘리는 깨끗한 눈물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면 허황한 잡소리들을 체치게 되고 이루어질수 없는 망상에 물젖게 된다.

우거 인민들이 잘살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인덕으로 인민을 안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령도자를 그리고 흠모하며 흘리는 인민의 눈물은 마물줄 모르는 혼연인체의 대화가 되어 세상끝까지 도도히 흐르고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환호를 울리며 바다물에 뛰어드는 선봉대군인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환호를 울리며 바다물에 뛰어드는 선봉대군인들

# 천추에 용서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자들은 가장 처참한 징벌을 받을것이다

##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과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보도와 담화 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를 살포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지난 24일 괴뢰군부패당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등으로 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는 얼어붙고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

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군부패당이 북침전쟁연습 등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뒤집는 극악무도한 도발을 감행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더우기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인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위협하는 뼈라살포놀음을 벌여놓은것은 대결의식이 골수에까지 짙어 들어간 괴뢰군부패당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무지막지한 란동이다.

괴뢰군부패당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대북심리전은 비방

증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역겨운 망발을 공공연히 제치면서 신형뼈라포탄을 개발하여 배비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과 우익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뼈라살포놀음을 벌리게 하고는 비방중상 중지합의를 지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는 꾀병으로 변명해나섰다.

이번에 괴뢰군부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범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나,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있으나 집안에서는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을 고취하는 반공화국소동을 험악하게 벌리고있다.

제 집안에서는 온 세상이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데 밖에 나가 감람나무가지로 흔들어대는 회비국이야말로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신뢰》니, 《통일》이니 하는 말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에 매달리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과격후파

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악랄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망 등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미처날뛰는 괴뢰군부패당들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내역죄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무지막지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 가져올 과격후파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각 계층이 더 치는 분노의 목소리

### 뼈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속대에 하루강아지 범무 서운술 모른다더니 지금 괴뢰군부패당이 노는 꼴이 그 격이다.

미국과 약함하여 북침전쟁광기를 부리는 괴뢰군부호전광때문에 북남관계개선분위가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고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까지 조성되고있다. 그런데 이제는 서해의 최대열점지역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까지 대량 살포하고 있으니 이는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고교이다.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리는자들은 누구도 용서해본적이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지금 대결에 환장이 되어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있는 괴뢰군부패당에 대한 공화국 천만군민의 중요심은 하늘끝에 닿아있다. 만약 괴뢰군부호전광들이 폭발적전에 이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오히려 경계망동한다면 그때는 아예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경공업성 극장 최창범

### 우리 공장 절단기로 아예 몽청...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총포를 쏘아대며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누를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 기

뻘며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는데서 로동계급이 한 몫 단단히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던 우리 공장 로동자들이이다.

그런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분위에 배치되게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깨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결의식이 폭두까지 짙어 들어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지막지한 란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 로동자들은 결코 속이 다른자들을 제일 중언한다. 앞에서는 《신뢰》요, 《통일》이요 하고 뒤구석

### 선군조선의 불벼락을 들썩워야 한다

남조선의 군부패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더러운 뼈라들을 또다시 살포하였다니 분노로 막이 가 갈린다.

외세와 한쪽이 되어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혈안이 되고있는것도 모자라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대에서 반북뼈라살포망동까지 부리었으니 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열간광들이들의 가소로운 추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군부패들의 머리속에는 온통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북침전쟁야

에서는 동족대결광판에 혈안이 된 역겨운 자들을 끌어다 우리 공장 절단기로 목덜미를 잘라버리고싶은 심정이다. 다시는 미친짓을 못하게 아예 몽청...

평양석재공장 로동자 주동식

육박에 없다. 이런 개무리들은 말이 아니라 불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우리 제대군인 청년 대학생들은 뼈라살포에 앞장선자들을 당장 가차없이 징벌해야 한다며 옥육 버르고있다.

그토록 알아듣게 말해주고 그토록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극악무도한 도발만을 골라하는 군부패무리들에게 선군조선의 불벼락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철주사범대학 학생 전장연

### 백령도는 월내도의 코앞에 있다

나는 조국의 최남단 서부지역에 위치한 월내도에서 병사생활을 하고 내 조국을 총대로 갈라지 지킬 일념으로 군사부부의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있는 군관이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술한 종이장들이 바람에 날려온

가랑잎처럼 여기저기 나뒹굴고있었다. 알고보니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날린 반공화국뼈라였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것과 같은 분노와 적개심이 북받쳤다. 여기가 어디인데 감히 이따위 뼈라몽치를 날려보내다니, 나만이 아니라 온 월내도의 군인들이 격분을 리치고있다.

우리 월내도는 선군명장의 성리성을 발자취가 그 어디보다 뜨겁게 스며있는 섬이다. 망망한 바다의 외장 높은 열점지역에 위치한 섬, 이런 위험천만하고 물에서 멀리 떨어진 섬방안에 대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두번씩이나 찾아오실줄이야 어찌 꿈엔들 생각할수 있었으랴. 그 있을수 없는 날들에 이곳 군인들과 군가족들을 사랑의 한숨에 안아주시고 친아버지도 줄수 없는 다심하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신 원수님을 그리며 배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역적무리들은 천길 명숙을 뒤져서라도 잡아내 망물로 갈아치우자고 우리 작업반원들 모던가 지금 옥육 버르고있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의 태양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군부패들은 이제 날벼락을 맞을것이다. 꼭산군 덕흥동농장장 제5작업반 분조장 리복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은 가차없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 괴뢰호전광들의 뼈라살포행위소식을 접하고 보니 온몸에 얼어넘치는

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포들이 백령도의 적진지모두를 사격과 낙안에 넣고 발사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있다.

인륜도덕은 물론 민족, 통일외의식이 요물만큼도 없고 살기만 대결의식에만 몰려있는 백령도의 불망나니들을 당장 지옥의 불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조선인민군군관 최홍철

###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남조선군부패들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 공화국의 천만군인이 생명처럼 귀중한 여기는 최고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뼈라를 뿌려댄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칼질을 해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대역죄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역적무리들은 천길 명숙을 뒤져서라도 잡아내 망물로 갈아치우자고 우리 작업반원들 모던가 지금 옥육 버르고있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의 태양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군부패들은 이제 날벼락을 맞을것이다.

꼭산군 덕흥동농장장 제5작업반 분조장 리복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은 가차없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한 괴뢰호전광들의 뼈라살포행위소식을 접하고 보니 온몸에 얼어넘치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수 없다. 감히 어디에다 대고 샅대질인가.

우리 천만군민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최고존엄이다. 그런데 남조선호전광들이 세상이 경악할 망동짓을 감히 저지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자리잡힌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버리는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로서 우리와 거이 해보겠다는것이냐 가려없다.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던 민족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살아 숨질 자리가 없다. 공화국의 로동적위군이 세기를 이어 불패의 싸움준비를 다져온것은 바로 이런 인간오물들을 지구상에 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우리 로동적위대원들은 만장약된 복수의 감정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우리의 존엄에 불질을 해낸 불한당들에게 백두산총대의 불벼락맛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야말것이다.

로동적위군 대원 리철수



### 관문점 분리선은 말한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콘크리트선이 판문점의 분리선이다. 너비 50cm, 높이 5cm.

한걸음이면 쉽게 넘어설수 있건만 이 분리선에 막혀 북과 남의 우리 거래는 근 70년간 오도가도 못하며 리별과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다.

대대로 한강로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문화를 꽃피워온 조선민족을 두동강낸 이 원한의 분리선을 만들어낸것은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분렬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리어금

###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1)

## 이 땅에 차고넘치던 통일의 환희를 짓밟으려고

지난 세기 70년대초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기운은 날로 앙양되어갔으며 제반 국제정세도 조국통일운동에 유리하게 전변되어가고있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주체60(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사이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8개 항목의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60(1971)년 8월 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외국수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시 남조선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람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천

명하시였다. 그것은 북남대화의 문을 열어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제안이였다.

그후 적십자예비회담을 거쳐 북과 남은 1972년 5월초 평양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벌이는 고위급정치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였으며 그해 7월 4일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거래의 단합과 통일기운이 높아지게 되자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장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집권자를 내세워 《남북성명에 우리의 운

명을 점철수 없으며 또 믿을수 없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악담을 내뱉게 하면서 성명을 백지화하기 위해 음모로양으로 책동하였다.

한해후인 1973년 6월에 미국은 남조선의 대결세력을 사족하여 이른바 《특별성명》으로 나라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두개 조선》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게 하고 이를 즉시 지지해나섰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평화지향과 통일외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미 1960년대에 《나 이키 허클레스》, 《마라톤》, 《호크》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과 핵지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던 미국은 1970년대에 더 많은 신형핵무기들을 반입하였다.

1975년 5월 30일 미국회하원에서 있는 1976년도 국방예산심의회의에서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로 이끌어간 미국의 진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197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함께 벌여놓은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더욱 로골화되였다. 이 훈련들에서는 《F-16》전투폭격기와 《B-1B》장거리전략폭격기, 핵잠수함까지 동원되었으며 원자포훈련, 《랜스》핵미사일발사연습 등도 진행되였다.

미국의 직접적지회에 의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부터 1975년 9월말까지의 기간에 만도 무려 6만 8900건에 달하였다. 또 미국의 조종하에 1974년 한해에만도 서해사건, 울릉도사건, 8.15저격

문점사건을 일으켰다. 그를 구실로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모든 침략무력에 전투태세를 갖추게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항공포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현대적군사장비들과 병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첫째가는 암초라하는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판문점 사건 현장

# 시뮬레이션 칩락자 미제와 반드시 결산 하리라

## 기어이 결산 하리라

김태룡

참을수 없는 분노로  
괴리지게 절규했노라  
서슬푸른 증오로  
세기를 두고 저주를 퍼부었노라  
미제칩락자

생기고  
전쟁, 불행과 재난  
그 끔찍한 말들이  
우리 사는 땅에 총탄처럼 박혀  
있거니

어대는  
미국이야말로 《악마의 나라》

오, 치솟는 격분이어  
미제-그 악의 제국 그대로 있는  
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넘편으로만 남아있게 되거늘

가슴을 치는 증오를 쏟아  
대를 두고 다쳐온 분노를 폭발  
시켜  
우리는 칩락자 미제와 반드시  
결산하리라  
오, 피는 피로써  
우리에겐 받아야 할 피값이  
너무도 많다

《저강도도발》이요 하는 미국  
의 꼴이

구린내나는 몸통이를  
《유엔》이라는 면사포로 가리  
우지 말라  
누가 유엔결의를 위반하는가  
주권과 평등존중은 유엔성원국  
들의 의무

## 모를 일이야

모를 일이다  
왜 그리고 떠들어댈가  
미국놈들  
북의 로케트가 평화를 위협한  
다

모를 일이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핵무기를  
흔들어대며  
세계제국을 운운하는 미국놈들  
왜 날마다 눈감고 아옹할가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  
를 놓고  
미국놈들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을 지  
키며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하  
였다

무지한 사고와 황당한 논리로  
걸고드는 도발이 도수를 넘어서  
게 되면  
엄숙히 경고한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는것을  
이것은 도발도 위협도 아니다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로케트들 만들  
었겠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그런데 왜 그리 떠들어댈가  
모를 일이다  
이러고, 아프가니스탄...  
돌아가며 재더미로 만드는 미국  
놈들

날마다 《선제타격》 쫓겨대며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바다에  
침략전쟁연습 펼쳐놓고  
핵전략포격기, 핵항공모함 들이

밀먼서도  
어치구니가 없다  
우리보고 죽을 때나 기다리라는  
건가

정말 모를 일이야

## 공포증에 걸린 미국

김송림

저 멀리 대양 건너 미국  
요즘은 두통에 걸려 참 야단  
났네  
북의 로케트발사를 두고  
《도발》이다, 《위협》이다!-  
미친듯 고아대며 날뛰고있으니  
《제재》와 《압살》의 울가  
미로  
계속 조이기만 하는데  
이건 어찌된 판이야!  
북은 팡-팡 로케트를 쏘며  
우리를 《위협》하고있으니?!

《대국》이라 으시대던 미국  
《도발》이며 《위협》이라  
고아대며 불안 감추지 못한다  
각종 미사일들 제일 많이 쏘아  
대고  
핵무기들을 휘둘러대면서

공포증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군

제노라 우쭐대는 미국놈들  
오는 주먹 하나면 가는 주먹  
하나

그것도 모르는 천치바보인가  
우리가 그러도 무서우면  
우리를 건드리지나 말지

## 《대국》의 체면에 그제 된가

단 몇발의 로케트발사에  
벌벌 떠는 꼴  
저러다간 며칠을 못 넘기겠네  
넋을 잃고 정신 잃은 미국  
더 큰 로케트 쏘다면  
아예 너부러지지는 않겠는지

제아무리 악을 쓰며 고아대고  
《제재》며 《위협》을 가해도  
오히려 심신이 불편해하는건  
미국  
개교양신 당하는것도 미국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국》의 체면 잃지 않으려  
거든  
점잖게 입다물고 가만있는게  
어떤가  
그 길만이 공포증 치료하는  
만능처방 아닐가!

한사코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  
돌이켜보라  
치떨리는 이 미제가  
이 나라 력사에  
얼마나 많은 참상 가져왔는가

지금 이 시각도  
《위협》과 《도발》을 넘볼처  
럼 외위대며  
《악의 나라》라고 헐뜯어대는  
미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개선에 찬서리를 끼었

## 도발도 위협도 아니다

김영일

오만과 독단에 사로잡히면  
혹백도 견도하는 법  
남의 땅에서 벌리는 군사연습은  
《방어적》이고  
주인이 제방에서 하는 훈련은  
《침략적》이라네

가소롭기 그지없다  
자라 보고 놀란 놈 술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위적인 로케트발사를 놓고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위협》과 《도발》이라 떠드  
는 꼴  
손웃음이 나가누나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핵  
폭격기  
죽 거느리고 호언장담하다가  
몇발의 로케트발사에  
호랑이 본 송냥이처럼 벌벌 떨며

미국놈들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소년의 이마에 도적이라 새기던  
그 뻔뻔스런 강도의 손이  
내 조국의 허리를 동강내었다  
《서민》 호가 뿜던 칩락의  
포성이  
6.25전쟁의 폭음을 울리었다

이 땅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폭탄을 뿌린 미제  
누구의 가슴이든 헤쳐보라  
그날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선  
오늘도 선지피가 흐르고있다

칩락자 미국이 있어  
분렬민족이란 치욕의 말이

# 대담 북침을 노린 위협천만한 상륙작전연습

내의호전세력들이 남조선  
의 포항에서 대규모 《쌍  
룡》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  
은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문가 양세  
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쌍룡》 연합상륙  
훈련이 감행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  
으면 한다.

양 세 철: 3월 27일에 시  
작된 《쌍룡》 연합상륙훈련  
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  
게 된다.

이번 《쌍룡》 연합상륙훈  
련에는 오기나와주둔 미해  
병대 제3원정려단, 해군기  
동대를 비롯한 미제칩락군  
부력 9 500여명과 남조선군

3 000여명 등 도합 1만 2  
500여만명의 칩락부력과 고  
속기동용 수직리착륙수송기  
22대를 비롯한 최신공격장비  
들이 투입되었다.

지난해에 감행된 《쌍룡》  
연합상륙훈련에는 미해병대  
와 남조선군 해병대 3 500여  
명과 미해병대가 보유한 고  
속기동용 수직리착륙수송기  
4대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번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급과 규모에 있어서 지난  
해보다 몇배나 더 큰 그야  
말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  
도 이번 《쌍룡》 연합상륙  
훈련이 1993년 《팀 스피  
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20여년만에 최대규모라고

보도하였다.  
기자: 이번 《쌍룡》 연  
합상륙훈련은 철두철미 공화  
국을 겨냥한 공격연습이 아  
닌가.

양 세 철: 그렇다. 일반적  
으로 상륙은 방대한 무력이  
해상과 공중부력의 지원밑  
에 상륙장갑차, 수륙양용망  
고 등을 리용하여 상대측의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깊이  
로 전진지역을 넓히면서 중  
원부력이 진출할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는것을 기본목적  
으로 하며 그 자체가 공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제칩락군의 군사교범을  
보더라도 상륙작전의 본질  
을 여러 군중, 병종들의 협  
동작전밑에 《바다에서 육지  
로 진출하는 공격작전》이라  
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상륙공격》, 《상  
륙습격》을 상륙작전의 기본  
형식으로 규정하고 상대측중  
심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  
거나 넓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이러한 작전을 펴야 한  
다고 밝히고있다.

《쌍룡》 훈련의 공격적,  
침략적성격은 여기에 동원  
된 무력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해병대가 상대방의 해안  
에 대한 상륙작전을 기본으  
로 하는 무력으로서 공화국

전의 척후대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오기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은 제  
3해병사단, 제1해병비행단,  
제3해병군수지원단과 함께  
미 제3해병원정단에 소속  
된 무력으로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조선반도로 가장 먼저 투입  
되는 미군중원부력이다.

뿐만아니라 미해병대 제  
3원정려단은 우리 나라에 대  
공격하는 측에서는 해안지역  
하고있으며 이미 이라크전  
쟁에 참가하여 실전능력을  
쌓은 칩락부력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이  
공화국을 겨냥한 공격훈  
련이라는것은 연습지대선  
역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있다.

경상북도 포항은 해류와  
해안지대의 특성상 공화국  
북반부의 동해안지역과 매  
우 유사한 곳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해마다 이곳에서 북침을 노  
린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을 반  
복하여 벌려놓고있다.

기자: 미국이 해마다 남  
조선군과 함께 포항일대에  
서 연합상륙훈련을 감행하  
고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고 보는가.

양 세 철: 그것은 공화국

에 대한 상륙작전능력을 키  
우는 한편 북침전쟁의 불  
성과 속도를 높여 북반부지  
역을 빠른 시일안에 라고앉  
히려는데 있다.

상륙작전은 군사적 측면에  
서 볼 때 공격하는 측이 상  
대방의 임의의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자유롭게 선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측에 매  
우 유리하다.

방어하는 측은 긴 해안선  
을 모두 방어해야 하지만 공  
격하는 측에서는 해안지역의  
어느 한 가운뎃을 선정하여  
불의에 상륙부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더우기 상륙작전은 병력과  
전장장비, 군수물자 등 전투  
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들어가기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특히 북반으로 길게 뻗어  
있고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  
인 조선반도의 지형상 특성  
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상  
륙작전을 통해 칩락부력을  
신속히 공화국의 내륙깊이  
에 진출시켜 강력한 제2전선  
을 구축하고 그것을 확대하  
여 전진선을 빠른 시일안에  
점령하려 꾀하고있다.

1950년 조선전쟁당시에도  
미국은 칩락부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곧바로 38°선이북  
으로 내몰았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목표  
는 예나 지금이나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북반부지역을 점  
령하는것이다.

포항일대에서 감행되고있  
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야망을  
드러낸 도발적인 북침전쟁  
연습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으며 칩락세력  
이 전쟁의 도화선에 감히 불  
을 지르면 씨도 건질수 없  
게 단호히 짓밟개버리코야말  
것이다.

# 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은 개죽음

미국이 남조선의 포항에  
서 수많은 해병대부리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대  
규모상륙작전연습을 벌리면  
서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  
있다.

그야말로 하루강아지 범무  
서운줄 모르는 격의 어리석  
은 망동이다.  
호전광이 같길은 전쟁이요  
호주부터 차례질것은 처참한  
개죽음이다.

미국이 연합상륙훈련이요,  
연합공중타격훈련이요 뭐요  
하며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  
려고 날뛰지만 우리 인민군  
대는 아이들의 군사놀음만큼  
이나 여지가 않는다.

미국의 호전광들이 반드시  
상기해야 할것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의 영웅적조선인민군  
해안포병들은 단 4문의 포  
를 가지고 인천에 상륙하러

는 맥아더의 5만여명의 대병  
력과 맞싸워 섬을 3일간  
이나 사수하였다. 만약 미  
국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  
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인민군  
포병들은 월미도의 용사들  
처럼 멀쩡의 명증포화력으  
로 송냥이미제를 한놈도 살  
려보내지 않고 모조리 소탕  
해버리겠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철명

# 3각군사동맹이 불러올 재앙은

일마전 네메를란  
드의 헤그에서 미국,  
남조선, 일본  
당국자들이 모여  
《3자회담》이라  
는것을 벌려놓았다.  
대조선전대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이 주관  
한 이 공중이관에서  
그 누구의 《핵  
위협》이니, 《공  
동대응》이니 뭐  
니 하는 공화국을  
자극하는 망언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이러한 반공화국  
행모의를 두고 세  
계 여러 나라 정세  
분석가들은 미국이  
3각군사동맹을 강  
화하여 대아시아침  
략전략을 실현해보  
겠다는 속심을 그  
대로 드러낸 모의  
판이라고 평하고  
있다.

라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원래 미국과 남  
조선, 일본은 헤그  
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전수버사회  
의》에 참가하는 하  
지만 《3자회담》  
은 그 일정에 포함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회  
의가 열리기 며칠전에 그 일  
정이 발표되고 이번 《3자회

담》이 진행되었다. 자국의  
리해타산으로부터 출발한 미  
국의 압력이 작용한것이다.  
최근년간 일본의 력사외곡  
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은 남조  
선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이로 인해  
일본과 남조선의 관계가 랭  
랭해졌다. 앞날이 낫것은 남  
조선과 일본을 들켜대려 내  
세워 아시아지배전략을 추구  
하는 미국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티각태  
각하는 두 하수인들을 《화  
해》시켜 서로 손을 잡게 하  
려고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  
였다. 그 압력에 못견디어  
미국의 주관하에 남조선과  
일본이 이번 《회담》락에  
모여앉은것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강압에 의  
해 마련된 《회담》이대보  
니 그 내용도 미국의 대아  
시아침략전략실현에 남조선  
과 일본이 적극 동조하라는  
미국의 요구뿐이었다. 미국  
은 모의판에서 《지역평화  
와 《안정》을 떠들며 각이  
한 합동군사훈련들과 미사  
일방어체계수립 등에 하수인  
들이 적극 참여할것을 강박  
하였다.

미국주도하의 3각군사동맹  
이 추구하는 칩락대상은 결  
코 조선반도에만 국한되는것  
이 아니다.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  
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동  
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

배권을 확립하려는것은 어제  
도 오늘도 변함없는 미국  
의 대외정책이다. 그 칩락  
정책실현의 선견대, 들켜대  
려 남조선과 일본을 리용하  
자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  
이다.

미국은 지금 그 누구의  
《핵위협》이니, 《도발  
》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에  
서 칩락전쟁의 기회만 노리  
고있다. 이 시각에도 남조선  
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독수리》합동군사  
연습도 따지고보면 그 무  
슨 《도발》과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독수  
리》북침전쟁연습을 벌려  
고있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이와 유사한 훈련들이 일본  
까지 가세할수 있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침략전략  
에 따라 체모를 갖추어나가  
는 미국, 남조선, 일본의 3각  
군사동맹의 위험성은 날이 갈  
수록 더욱 커지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주  
도하의 남조선, 일본의 3각  
군사동맹에 우리 민족은 물  
론 세계가 걱정하고 눈초리  
를 돌려야 할때이다.  
송춘일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 송미사대에 물젖은 현실을 개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0일 사  
설을 통해 송미사대에 물젖  
은 남조선사회현실을 개탄하  
였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사회  
는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착  
각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썼다.  
과연 미국이 선진국인가  
에 대해 맹렬하게 따져보아  
야 한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선망  
해 마지않는 《선진국의 표  
상》 미국은 어떤가.  
클린턴행정부시기 장관을  
지냈던 미국 버클리대학 교  
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불  
평등심화를 다룬 영화를 내  
놓았다.

영화제작경위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가 헛살았던것 같다.  
세상은 더 나빠졌다. 사람들  
은 이제 변화는 불가능하다  
고 생각할 정도이다. 죄다  
월가와 한통속이다. 그렇다  
고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훼손  
하는것을 지켜볼수만 없지  
않는가?》

미국은 부유한 1%가 국  
민총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99%가 나머지  
10%를 나눠가지고있다.  
실제로 재벌 400명이 1억  
5 000만명이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있다.  
《1% 대 99%》의 사회를  
고발한 2011년 9월의 월가점  
령시위가 벌어지게 된 배경

이다.  
이것이 《선진국의 표상  
》이자 《신자유주의의 원조  
》 미국이란 나라의 실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파산선고  
를 받은 미국신자유주의의  
의로민영화에 따른 망국화  
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빈  
궁에서 허덕이고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최  
악의 미국식의로제도를 선  
진제도인것처럼 의곡선전하  
면서 의로민영화정책을 강  
행하고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망상  
에서 깨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송미사대주의의  
착각에 빠져 머저리노릇이  
나 하겠는가.

본사기자

# 미국제 선제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

남조선인터넷신문 《자  
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  
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  
람들》이 25일 서울 통산에  
있는 국방부앞에서 미국제  
선제공격무기의 구입을 반  
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  
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미국제 무인정찰기  
와 《F-35A》 전투기를 구  
입할것을 결정하는데 대해 언  
급하였다.  
이 무기들은 반공화국선제  
공격방안이 담겨진 《맞춤형  
억제전략》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에서 핵심으로 되고있다

# 공격무기의 구입결정을 반대

고 밝혔다.  
이것이 도입되면 조선반  
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게 된다고 규탄하  
였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서의 미국의 봉쇄전략실현에  
남조선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엄청난 국민혈세를  
랑비하게 하는 미국제 무기  
구입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단체 성원들은 《전쟁 촉발  
시키는 무기도입 반대!》 등  
의 구호들을 웨쳤다.  
본사기자



굴욕적인 《3자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 세계의 평가 - 악의 근원은 미국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온갖  
못된것을 일삼고있어 수많  
은 나라 사람들에서 비난  
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인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  
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의 24%가 미국을 가장 위험  
한 나라로 본다는데 견해를 표  
시하였다.  
반면에 서방언론들이

《악과 위협의 근원》으로  
평가한 나라들을 가장 위험  
한 나라로 꼽은 응답자비율  
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 대 화 와 평 화 파 괴 의 원 흥 미 국 을 단 진 한 다

## 조 국 통 일 연 구 원 비 망 록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은 지금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은 거례와 전세계는 우리가 천명한 원칙적립과 그 실천을 위해 취한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환영하면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통일의 새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침략적 본성을 더욱더 드러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북남사에 대해 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그것을 파괴시키고자 갖은 책동을 다하여왔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규탄단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1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동방문명국에 통일국가를 세우고 한강도에서 한곡조를 이으며 정의를 자자손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분열의 비극을 강요하고 전쟁의 참화를 들뜨였으며 장장 70년이 되어오도록 통일을 방해하고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극악한 원흉은 다음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분열시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주었을뿐 아니라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을 악랄하게 짓밟아왔다.

해방후 민족분열영구화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소집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파란책동과 전쟁도발위험성을 막고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리승만도당을 내몰아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의 범죄적만행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1960년대초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일어나고 그를 계기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이며 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자 미국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그것을 하루아침에 문화발로 짓기버렸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 북과 남 사이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에 대한 회담과 기대로 온 감산이 끊어질때 미국은 《두개조선》 정책을 전면내 내놓고 각종 모략사건과 악명높은 《포커

스 테리니》, 《팀 스프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고 졸지에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1980년대 북남사이에 직접자회담이 진행되고 콘콜퍼해를 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우리의 지성이린 구호물자가 전달되었으며 예술단, 고향방문단이 서로 래왕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폭동이를 내뿜으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일층 강화하는것으로 그에 빗장을 질렀다.

미국은 1990년대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에도 《북핵위기》를 조성하고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 북남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2000년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처음으로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자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막아보려고 더욱 미처 날뛰었다.

미국은 내외외론에 못이겨 결의로는 6.15공동선언을 환영하는 척 하였으나 뒤에서는 《무분별한 합의서》, 《전면제지도》 하하며 저들의 불만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남조선전진작을 미국에 불러들여 《이 사람》, 《이 량반》 등으로 심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알고 있다》느니, 《미국의 리해관계는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느니 뉘니 하고 헐뜯았으며 북남관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모든 문제를 미국과 철저히 협의할것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부추하여 부위공화당정권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이니, 《독정의 전초기지》니 하고 헐뜯고 핵전쟁공격대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에 보조를 맞추며 대해 강박하였다.

2007년 북남수뇌상봉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더욱 기겁을 하면서 야단법석하였다.

당시 서울총대 미국대사, 남조선장군 미제전략군 사령관 등은 《중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개최는 북의 핵폐기이전에는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경제협력은 6자회담의 효과를 감소시킬것

이라고 하면서 10.4선언의 내용을 조복조복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았다.

뿐만아니라 선언에 서명한 남조선당국자를 몰아대다 못해 그가 《정권》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보수매거지를 내몰아 온갖 고문과 박해를 가하던끝에 비극적죽음에 처하게 하였다.

2007년 남조선에서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친미보수 《정권》을 조작한 미국은 리명박대당을 내세워 북남선언을 전면 유린하고 그 리행을 완전차단하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오바마행정부는 남조선 보수 《정권》과의 결탁을 일층 강화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연습에 더욱 미처날뛰고 만세 북남관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놓았다.

미국과 리명박대당에 의해 6.15시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들이 모조리 중단되고 인적래왕과 물적교류들이 차단되었으며 협력사업들이 질식되었다.

미국은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까지 끼여들어 북의 《남침에 리용》될수 있다고 가로막고 분개선을 통한 북남래왕에 대해서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를 조성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된다느니, 《핵과 미사일개발에 사용되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느니 하면서 폐방을 놓았을뿐아니라 보수매당이 《대북송금사건》을 터뜨리도록 배후조종하여 관광공업을 추진하던 남측기업가를 죽음에까지 내몰고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아예 중단시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조선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게 각방으로 방해하고 생산원 제를 실현에 어려움도 조성하는 등으로 질식, 오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실로 미국이 력대적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온 사실들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 2

미국은 올해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평화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성취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는 은 거례의 념원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

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례없는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것은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사이에는 모처럼 대화와 접촉의 움직임이 시작되게 되었다.

미국은 옹당 그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할 대신 황급히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남조선관계자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저들의 군사, 외교우두머리들을 서울에 급파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북비핵화》라느니, 《대북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횡포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들은 《북의 옹화공세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북과 대화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조심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리산가족상봉을 하더라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등으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였다.

미상부성 차관보 폴 리커드는 서울을 행각하여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조선상품들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통상압력을 가하겠다고 울리대였는가 하면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나서려 하는 공화당의 원 루비오는 군사분계선일대를 돌아치면서 《북과 대화하는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북을 믿지 말라》고 고야하였다.

지이 미국회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국제화하는것은 《대북정책》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충돌할수 있으며 《대북접근은 미국남조선동맹관계를 시험할수 있다》고 공식 경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놀음까지 벌리었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압박작전은 백악관 관계자들과 국무성의 장관, 부장관, 차관보,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미국국가안전보장국 장관 그리고 미국방장관,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을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과 국회 등이 총동원되었다. 미국이 이처럼 부산스럽게 돌아낸것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다.

한편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미국은 정초에 이라크에서 철수하여 미본토 텍사스주에 있던 미군 기지화대대 기지를 공격하고 고도무인정찰기 《글로브 호크》를 조선반도유사시를 대비하여 주일미군기지에 전진배치한다

는것을 발표하였으며 미해병대를 끌어들이고 피뢰군과 함께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관을 벌려 놓았다.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에는 피뢰군을 내몰아 조선시대 5개 섬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여 사람들을 경악시켰는가 하면 북남적십자사무집속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시대의 남조선 직도상공에 《B-52》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북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여 세계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파란책동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서 홀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개최되자 상봉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 내외의 우려를 외면하고 대규모의 최신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여 그 분위기를 극도로 호르 놓았다.

미국과 피뢰호전함들은 미핵잠수함 《콜럼버스》호와 미7함대의 기함인 《블루윙》호,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순양함 등 방대한 전쟁수단들을 조선동, 서, 남해에 끌어들이고 미북쪽의 신숙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려단, 오기나와주둔 미3해병기동군, 미해군과 공중무력까지 동원하여 《쌍룡》이니, 《액스 션》니 하는 대규모련합상륙 및 공중전투훈련 등으로 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미국방성은 4개년국방전략검토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국가》,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미북군참모총장 오디노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쟁열을 공공연히 고취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첫 걸음을 댄 북남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움직임은 시작부터 원서리를 맞았으며 숭고한 인도주의사업도 전도가 로인 해지고있다.

### 3

미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의에 찬 모략중상과 적대행위에 전례없이 횡포하게 매달리고있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정치, 군사적 위력이 더욱 불태워져서 날다져지고 우리의 존엄과 대외적지위가 비상이 높여지고있는데 당황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

하게 헐뜯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호기 속청한데 대해 그 무슨 《불확실성》이니, 《예측불가능》이니 하면서 악담하고있는가 하면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 로콜리어를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위협》이니, 《도발》이니, 《제재》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 모든것이 우리에게 대한 영상을 호르놓아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에 제동을 걸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론들과 서방의 신들까지도 《미국이 북의 대화평화공세에 된타격을 받고 뒤흔들리는 대조선고립살인전략을 지행려 한다》, 《남북관계개선의 살일영향에 돌을 던지고있다》,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있다》, 《미국이 남북관계를 로콜리어로 간섭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고 있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을 지행하고 있다.

실로 미국이야말로 북남대화과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북남관계과 미국과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이다.

미국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지도 70년이 되어오고 그사이 정세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승냥이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다.

미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적개성을 하늘에 사무치고있으며 온 민족이 백년속적 미국의 죄행을 총결산하기 위한 반미성정에 떨쳐나서고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의 사태는 미국의 진행과 침략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음, 백역당하 외역론으로부터 고립, 백역당하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이 되고 있는것은 다음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시대적추세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온 나가는 조선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막지 못할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전략과 전쟁책동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규탄배격으로 수차례로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종파오물을 단

2011년 전세제로 전파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투쟁의 진원지도 바로 미국인이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1%특별총이 전체소득의 9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테러범의자로 체포되고 흑인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감옥을 가는 나라, 돈만 있으면 개도 주지사로 당선되고 대통령후보로 나설수 있는 나라...

이제 어디 나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인민들을 《끝없는 대학살로 내모는 최악인권국》인 미국은 말그대로 《인권문제 종합회화집》입니다.

《아름다운 미》는 고사하고 《쌀 미》자도 아까우니 이에 《아닐 미》(未)자를 써서 《미국》(未國)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자극대를 인권오물장,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도 미국은 《인권》을 그 무슨 《절대가치》로 떠들며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전인류의 인권도 말살하고있습니.

2002년에 폭로된 관파나

모수용소의 실태가 여실히 말해줍니다.

《바다에 넘어질 때마다 군화발이 날아들었다.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의 머리우에 군화가 덮여 있었다. 한 병사가 몸우에 올라서 나의 몸에 오줌을 싸고있었다.》, 《수감자들에게 웃을 벗으라고 했다. 군인들은 발가벗고 망가진 수감자들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았다.》

이것은 리유없이 체포되어 판파나모수용소에 갇혔던 수감자들의 증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피비린내를 풍기며 이 나라, 저 나라를 총횡무진하다가 딱 걸리는 곳이면 바로 공화국이기에 때문입니다.

제 처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중벌나게 코베기를 들이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미국에 우리 나라에 있는 이런 옛일화 하나를 가르쳐주겠습니까.

속심 바르지 않은 어느 한 왕이 스님과 바둑을 두다가 풀러줄 생각이 없습니.

《이보게, 왜 내 눈엔 자네가 돼지처럼 보일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소리가 《제 눈엔 임금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고 했습니다.

저기 놀란 왕이 《내가 자네를 헐뜯는데 자네는 왜 나를 추어주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돼지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것이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것이 부처님처럼 보이는 법입니다.》라고 가시를 찼습니다.

순간에 왕은 돼지가 되고 스님은 부처님이 되었던것입니다.

가는 방방에 오는 흥두개라고 미국도 입부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미국의 흉한 얼굴이 더 드러나게 되니가요.

김정혁

생명권은 사회적존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생명은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인권의 다른 내용들을 논하는 것은 허풍에다 짐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황하기 그지없는 탁상공론일뿐이다.

오늘날 미국은 마치 세계의 《인권재판관》이나 되는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을 놓고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면서 주체넘게 놀아내고있다. 하더만 눈만 뜨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목이 터지게 웨쳐대는 미국의 인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인간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총기류범죄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인디언의 피바다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때부터 총이 미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어었다는것은 생각이 다아는 일이다.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제2조에는 민간인이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가 있다. 220여년전에 만드어진 조항을 근거로 미국에서는 일반사람들도 아무 제한없이 돈만 내면 총을 마음대

로 살수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3억정 이상의 무기를 민간인들이 보유하고있으며 이는 미국인구와 거의 맞먹는 방대한 량이다.

오늘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95명이 총과 관련한 사고로 사망하고있다.

하루가 멀다하게 총격적인 총격살인사건들이 일어난 소식들이 언론들에서 쏟아져나오고있는 속에 지난 2012년 12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7살의 어린이 20명과 6명의 교원이 한 범인의 무차별사격을 받고 살해되는 비극적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사회에 만연한 총기류범죄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경고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기규제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분주함을 피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부결되어 호지부지되고말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심지어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 살해하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있다. 결혼식장에 뛰어들어 3명의 경찰이 신랑을 총으로 쏘아 처참하게 살해하는가 하면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서는 집으로 가던 무방비상태의 흑인소년을 백인경찰이 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미국전역에서 대중적분노를 자아내었다.

하기에 미국의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캘리포니아대학의 한 교수는 《지금 총기는 수백만 미국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먼저 쯤

겨냥는 소지품이 됐다.》고 개탄했는가 하면 미국 곳곳에서는 학교교원들이 자신과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하다투어 사격련습에 참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현 미국정부가 총기규제에 대해 제아무리 오만한게 떠들어도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총란에 대한 판대가 날을 따라 더 늘어나고있다. 미국사회에 만연된 총기류범죄의 밀바탕에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악육강식, 인간중요사상이 깔려있으며 사람의 목숨을 한 싹처럼 취급하는 썩고 병든 《미국식민주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생명을 목표로 한 총기류범죄는 절대로 없어질수 없다.

조선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루는 개를 훔는다.》는 말이 있다. 저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인권말살사태에 대해서는 안보살하듯이 다른 나라들을 이리저러저러 시비질하는 미국의 추태야말로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하겠다.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총격사건으로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총기앞에 선 가련한 신세라는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있다.

미국에서 그칠줄 모르고 울리는 인간중요, 인권말살의 총성은 악의 제국, 인권의 불모지인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초침소리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미국이 공화국을 가리켜 《사악한 곳》, 《악의 나라》라고 또 헐뜯었습니다.

이전에도 《불량국가》니, 《악의 축》이니 별의 별 헐뜯고 책망으로 공화국을 헐뜯어 온 미국이 또 그 따위 나발을 불어대다니. 개들이 짓어대는것은 자기의 위세를 뽐내느라 그런것이 아니라 무서워서라고는 하지만 미처도 단단히 미친게 같습니다.

말은 바른대로 최근년간 공화국을 방문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 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스와 허영을 모르는 사람들》, 《순진하고 레질바른 인민들》, 《자주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나라》라고...

미국의 CNN방송과 AP통신도 《깜짝 놀랄 북의 현실》, 《당신들의 눈이 잘 못된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악동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언론도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공화국의 참모습인데 미국당국은 왜 현실을 지독하게 외곡하고 진실을 가리우려 하는지... 이런것을 두고 사팔뜨기는 바로 신기동도 기물게 본다고 하는거지요.

그럼 미국에 대해선 세상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요.

미국이라는 말을 한자로

《쌀 미》(米)와 《나라》(國)으로 쓴다고 합니다.

가관은 미국이 남조선에 자기 나라를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미》(美)자를 써서 선전했다는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인지? 인권문제 하나만 보기로 합니다.

《미국의 량심》, 《행동하는 지성》으로 불리우는 노엄 촘스키교수와 마이를 파레티교사는 2003년에 《더러운 진실》이라는

1%의 가진자들을 반대하여 2011년 전세제로 전파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투쟁의 진원지도 바로 미국인이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1%특별총이 전체소득의 9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테러범의자로 체포되고 흑인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감옥을 가는 나라, 돈만 있으면 개도 주지사로 당선되고 대통령후보로 나설수 있는 나라...

이제 어디 나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인민들을 《끝없는 대학살로 내모는 최악인권국》인 미국은 말그대로 《인권문제 종합회화집》입니다.

《아름다운 미》는 고사하고 《쌀 미》자도 아까우니 이에 《아닐 미》(未)자를 써서 《미국》(未國)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자극대를 인권오물장,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도 미국은 《인권》을 그 무슨 《절대가치》로 떠들며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전인류의 인권도 말살하고있습니.

2002년에 폭로된 관파나

모수용소의 실태가 여실히 말해줍니다.

《바다에 넘어질 때마다 군화발이 날아들었다.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나의 머리우에 군화가 덮여 있었다. 한 병사가 몸우에 올라서 나의 몸에 오줌을 싸고있었다.》, 《수감자들에게 웃을 벗으라고 했다. 군인들은 발가벗고 망가진 수감자들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았다.》

이것은 리유없이 체포되어 판파나모수용소에 갇혔던 수감자들의 증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피비린내를 풍기며 이 나라, 저 나라를 총횡무진하다가 딱 걸리는 곳이면 바로 공화국이기에 때문입니다.

제 처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중벌나게 코베기를 들이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미국에 우리 나라에 있는 이런 옛일화 하나를 가르쳐주겠습니까.

속심 바르지 않은 어느 한 왕이 스님과 바둑을 두다가 풀러줄 생각이 없습니.

《이보게, 왜 내 눈엔 자네가 돼지처럼 보일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소리가 《제 눈엔 임금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고 했습니다.

저기 놀란 왕이 《내가 자네를 헐뜯는데 자네는 왜 나를 추어주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돼지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것이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것이 부처님처럼 보이는 법입니다.》라고 가시를 찼습니다.

순간에 왕은 돼지가 되고 스님은 부처님이 되었던것입니다.

가는 방방에 오는 흥두개라고 미국도 입부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미국의 흉한 얼굴이 더 드러나게 되니가요.

김정혁

주제103(2014)년 3월 27일 평양

요즘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취재를 위해 국가예술공연운영국을 찾았던 우리는 정문에 써붙인 이런 글줄을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표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각 지구보급소들에서 판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문앞에서 메를 쓰며 관람표를 사자고 조르고 있었다.

국가예술공연운영국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와 친절히 설명해주고있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기자의 신분을 확인받고서야 겨우 말을 붙일 수 있었다.

《모란봉악단공연 관람표에 대한 수요가 간단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는것은 물론이고 매일 수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

# 매혹적인 공연, 모자라는 관람료

다. 이제는 제 목이 다 쉬어 버렸습니다. 각 지구보급소들에서는 이른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더 큰 《고층》을 겪고있습니다. 아마 모란봉악단공연은 1년내내 진행되어도 그 관람료가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는 관람료! 무척이나 지친듯 한 표정으로 하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사랑과 친근감, 날로 높아가는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엿볼 수 있는가.

연제인가 모란봉악단공연을 두고 쓴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기사대목이 떠올랐다.

《최고수준의 예술적 기량, 뛰어난 미모,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형식 과감하게 도입, 대중의 마음을 적 동시시킬 수 있는것이 이런 것이 어느 나라것이건 적국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 어쩌면 모란봉악단이 던진 지금의 파문은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예측대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날이 갈수록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시대정신이 내재하고 생생하며 세련되어있다. 연주자와 가수들의 형상수준이 매우 높고 안상볼도 재여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란봉악단이 인기를 끄는 리유를 다

을 가꾸어가는 창조적 주인공들이 펼치는 투쟁과 생활의 낭만적인 선물도 있다.

무대에 《바다만화가》가 올릴 때에는 마치 물고기 떼 속살거리는 바다한복판을 누비는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흥을 돋구고있다. 1시간 남짓이 걸리는 이번 공연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 짧다고, 매일 다시 와서 보겠다고 말을 하고있다. 한번 본 사람들도 두번, 세번 와서 다시 보고있으니 관람료가 매일 수천장씩 판매되어도 어찌 모자라지 않겠는가.

누구나 기대한다. 사랑하는 모란봉악단이 다음 공연무대에는 또 어떤 새 모습을 펼쳐놓을것인가. 언제나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그 관람료가 남을 날이 과연 있을까.

본사기자 김춘경

# 활발히 운영되는 원격교육대학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제95(2006)년 1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을 찾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학의 원격교육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온 나라에 원격교육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지난해 6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 꾸린 원격강의실에서 졸업원들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대학강의를 받는것을 보시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원격교육이 중요하다고, 과학기술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키워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원격교육대학은 교원과 학생이 멀리 떨어져있어도 정보통신수단을 리용하여 교육의 전과정을 거치는 대학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교사를 거점으로 대학생들이 교원들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주어진 교육강령에 따라 대학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원격교육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원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대학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김일남학장은 원격교육은 많이 련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느때든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수 있고 누구나 대학공부를 쉽게 할수 있는 지식경

제시대에 맞닿는 가장 우월한 교육형태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중등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시험을 수감자가 멀리 떨어져있어도 컴퓨터망을 의한 교육인것으로 하여 지방자의 거주지와 직업에 관계없이 시험에 참가할수 있으며 장애자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돈 한푼 안 내고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금 컴퓨터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가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는 기계, 금속, 재료, 전자공학 등 여러 공학분야는 물론 경공업과 식료이용공업분야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 그리고 기업관리, 정보기술, 외국어 등 30여개의 학과가 있어 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준다.

초기에 황해제철련합기공소의 40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의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대학의 강의수감자수는 지금은 수천명으로 늘어나고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하루일을 마친 후 현 대적으로 꾸러진 원격강의실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원격교육대학 강의를 받고있

으며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원격교육대학 학생인 김정숙영양제사공장 김명환 지배인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통틀어 생산현장을 찾아왔다고, 원격교육이 야말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이상적인 교육체제라고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공소 중형용량로직장 노동자 백규석은 여기에 앉아서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이름있는 교수선생님들의 강의를 필요한 시간에 다 받고있다. 이전에 배워러던 대학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켜면 공학현대학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컴퓨터망을 통해 유능한 과학자들과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배워주니 정말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이 평범한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바로 여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화폭이 비껴있고 최첨단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공화국의 현실과 밝은 미래가 어그러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원격교육대학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최태성



모란봉악단 공연이 관람자들의 대접잔속에 진행되고 있다.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대학 강의를 받고있다.

#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료리》 개설

최근 조선료리협회 서제로 리정보기술교류사에서 맛과 냄새, 색깔이 독특하고 약리 적가치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료리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료리》를 개설하였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대외홈페이지 《조선료리》에서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조선료리들과 식생활풍습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 조선료리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서, 잡지들과 협회활동소식, 옥류관, 청류관, 식당배 《대동강》호 등 국내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봉사단위들을 소개하고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자들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음식맛이 각별히 좋고 향기로운 조선료리, 색깔이 아름답고 건강과 장수에 효과적인 조선료리의 우수성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가질수 있다. 또한 이름난 조선료리들이 죽어가는 미국서민들과 인종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년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만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한 《식요》(없는 사람)라는 기록영화가 인기를 끌며 상영된 적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너성의 경우를 놓고보자. 회사에 다니던 그는 너무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리아너는 즉시 자가 가입한 블루실드보험회사소속 병원

이 죽어가는 미국서민들과 인종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년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만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한 《식요》(없는 사람)라는 기록영화가 인기를 끌며 상영된 적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너성의 경우를 놓고보자. 회사에 다니던 그는 너무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리아너는 즉시 자가 가입한 블루실드보험회사소속 병원

지난 2월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는 조선을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 《북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 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단마디로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조선에 가서 그곳의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기때문이다. 언제인가 나는 《내가 본 나라》라는 조선영화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학생 : 《...주체사상을 기초로 발전하고있는 북조선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있습니다.》

다카하시 : 《학생은 북조선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소?》

학생 : 《예!!》

다카하시 : 《...나도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리론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사상과 리론들이 현실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그 모든 사상과 리론이 인간의 진정함을 보장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해주지는 못했소.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숙명적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이요.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여부를 말하지 말

라는것이요.》

학생 :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북조선에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카하시 : 《그렇다. 나도 북조선에서 제창한다는 그 사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해주고있는지 그 진실여부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 가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그래. 가보야 한다.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 이 영화의 원형인 일본의 유명

이고 가장 선한 곳이라고. 악이란 도덕적으로 못되고 나쁘며 도리에 어긋나는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북의 정책은 근로하는 인민을 위한 선의 정책이며 이 나라에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온갖 국가적책임을 받으며 살고있다.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창전거리, 만수대거리를 비롯한 살림집들의 주인으로 되고있고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각지에 꾸려진 체육문화시설들에서 인민들

은 《장본인》은 바로 북체제이다.》

북인민들은 국가덕에 아무 격정없이 살고있다. 그들은 맨하탄의 마천루가 있는 곳에 20%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모를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인민을 위한 선의 정책의 혜택속에서 살고있으니 북인민들도 선의 인간일수밖에 없다.

북에서는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인간사랑의 미풍이 차넘치고있다.

진실로 악의 나라를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항상 자들을 《만민복지사회》, 민주주의가 제일로 보장된 《발전》되고 《문명한 사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미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에 넘쳐나는 빈민자들과 거리와 골목들을 누비는 로숙자와 동남자들이 단 한명도 없고 미국인모두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잘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말 미국은 《만민복지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인가. 정말로 미국은 근로민중모두를 위하여 《복지혜택》을 베푸는 《신의 나라》란 말인가.

내가 본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초고층아파트들에는 실리, 집없는 방랑자들이 수도룩하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권리의 하나인 노동의 권리가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에도 미로동성능은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1주일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2만 3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나는 매일같이 보고있다. 《만민복지》의 화려한 간판밑에서 집없이 방랑하는 수많은 방랑자들과 거리를 메우며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의 행렬을, 돈이 없

어 죽어가는 미국서민들과 인종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년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만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한 《식요》(없는 사람)라는 기록영화가 인기를 끌며 상영된 적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너성의 경우를 놓고보자. 회사에 다니던 그는 너무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리아너는 즉시 자가 가입한 블루실드보험회사소속 병원

이 죽어가는 미국서민들과 인종차별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몇년전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기만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한 《식요》(없는 사람)라는 기록영화가 인기를 끌며 상영된 적이 있다.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너성의 경우를 놓고보자. 회사에 다니던 그는 너무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리아너는 즉시 자가 가입한 블루실드보험회사소속 병원

서는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녀성들과 어린이유괴 및 인신매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이른바 《인권침해소지》가 있기만 하면 감시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럴 자격이 있는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것을 지난해 4월 밝혀진 판파나모 테로용의자수용소사건이 보여준다. 이 수용소에 채만도 없이 수감된 용의자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은 이곳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교문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인권의 중추국으로 행세하는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현실이 어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인권재판관》이라고 되는듯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만들어 북에 대해서 협탄을 늘어놓고있다.

인권의 불모지인 미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곳, 악의 나라인것이다.

악의 나라, 사악한 곳의 국무장관인 존 케리에게 다시한번 권고하고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조선에 가서 국민들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시고,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여부를 말하지 말

재미동도 김경운

# 자기 눈으로 보는 삶의 실상

한 기자 다가가 다가오는 조선에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북에 대한 방문인상기를 써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하다면 존 케리에게 물고싶다. 그대 당신은 조선에 가보거나 하고 《악이고 사악한 곳》이라고 전세계에 내뱉었는지? 《대국》의 국무장관이라는자가 제논으로 보지 못하고 일개의 주권국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한다는것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그에게 권고하고싶다. 조선에 한번 가서 보라고.

미국에서 살고있는 나는 여러 차례 걸쳐 북에 가보았다. 두 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체험자로서 당당히 나는 말할수 있다.

북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

이 기쁨과 생활의 낭만을 꽃피워가고있다.

내가 북에 가서 창전거리의 살림집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고싶다. 그때는 내가 북의 실상을 잘 모르던터이니 그런 훌륭한 집을 잘 믿어지지 않았다.

칼미리가 하늘을 난다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다. 더 큰 놀라움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집주인이란것이였다. 내 마음을 안듯 집주인이 대체 미국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것이였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언제인가 먼저 북을 다녀온 동료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북주민들은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것을 그저 받으면서도 돈 한푼 안 내는 《향심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렇게 만

나라를 위해 군사복무하다가 몸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어도 아름다운 녀성들이 그의 애국적공적에 공감하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다.

북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외곡된 보도에 영향을 받고 인연이 어떻소하며 중상하고 모략한것이 세뇌되어 북녘사회를 잘못 알고있지만 실제 북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사회이다.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사회전체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전통으로 주체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해가고있다.

미국은 이런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나라를 《악의 나라》라고 헐뜯고있다. 북은 명실공히 선의 나라인것이다.

지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인가. 정말로 미국은 근로민중모두를 위하여 《복지혜택》을 베푸는 《신의 나라》란 말인가.

내가 본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초고층아파트들에는 실리, 집없는 방랑자들이 수도룩하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권리의 하나인 노동의 권리가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에도 미로동성능은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1주일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2만 3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나는 매일같이 보고있다. 《만민복지》의 화려한 간판밑에서 집없이 방랑하는 수많은 방랑자들과 거리를 메우며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의 행렬을, 돈이 없

에 갔으나 그 병원에서는 뇌종양이 아니라고 딱 잡아챘다.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보험회사는 《전문가가 뇌종양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며 마리아의 호소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병원과 짜고 보험금을 잘라먹기 위한 술책이였다.

보험에 든 사람인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의 교활한 술책으로 보험의 덕을 전혀 볼수 없으며 그 《덕》을 보는것마저도 치료비의 극히 일부뿐이나 받으면 《행운》으로 여긴다. 결국 미국의 의료보험이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돈을 빨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의료보험만이 아니다. 미국에